

올림픽 스타, 꿈나무 함께 광주 양궁 미래를 쏜다

제34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 성료

광주체고 심유한·광주여대 이수연, 통합 개인전 ‘우승’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광아 회장에 감사패 전달

광주 양궁을 빛낸 주역들과 미래 꿈나무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4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가 성료됐다.

광주시양궁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성진·염주·문산·두암·삼정·유촌초 등 남녀 초등부 6개 팀, 동명·운리·광주체육중(남여) 등 중등부 4개 팀, 고등부 광주체고(남여), 대학부 조선대(남)·광주여대, 실업팀 남구청(남)·광주시청(여)·광주은행(여) 등 선수·지도자 2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1988년 광주시양궁협회가 창립된 이후 매년 열렸던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양궁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한 유서 깊은 대회로 명실상부 국가대표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를 비롯해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 등이 대회를 통해 꿈을 키웠다.

또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용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주현정도 광주 출신으로 광주시양궁협회장기가 배출한 스타들이다.

특히 이승운(남구청), 최미선·안산(이상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오예진(광주여대)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과 양궁 꿈나무들



12일 열린 개회식에서 앞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장소에서 양궁으로 소통하고, 멘토와 멘티로서의 유대감을 키워가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대회가 그 의미가 크다.

12일 오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김광아 광



12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4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양궁대회 개회식이 끝난 후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내빈들이 참가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조영권 인턴기자

시양궁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전달식이 진행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2025 광주 세계양궁 선수권대회와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로 치러내며 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인 공로에 광주 체육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갑수 회장은 “광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양궁인들이 주목하는 명실상부한 ‘양궁 도시’다. 그 바탕에는 광주시양궁협회, 육성학교 교장선생님들, 지도자, 선수들의 하나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3회 연속 배출하고,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효자 종목으로 우뚝 선 광주 양궁의 원동력은 초등부부터 실업팀까지 촘촘한 연계 육성 시스템이 구축된 힘이라 생각한다. 광주시체육회 중목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협회 운영으로

광주체육 발전에 앞장 서는 광주시양궁협회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대회 결과 싱글라운드로 치러진 초등부에서는 과래우(삼정초·1천302점)와 윤혜원(유촌초·1천315점)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양지원(성진초·1천204점)과 김주성(염주초·1천204점)이 남초부 2, 3위를, 김지운(유촌초·1천274점)과 황국영(문산초·1천252점)이 여초부 2, 3위를 차지했다.

삼정초(3천740점)와 유촌초(3천758점)는 남녀 초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남중부에서는 김준서(광주체중·1천347점), 조여준(광주체중·1천359점), 이하늘(광주체중·1천339점)이 여중부에서는 심예인(동명중·1천349점), 이경민(동명중·1천348점), 박재윤(광주체중·1천341점)이 각각 1-3위에 자리했다.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진 고등부·대학부·실업팀 통합경기 남자부에서는 심유한(광주체고), 진효성(조선대)이 1, 2위 박주혁·윤동영(광주체

중)이 공동 3위를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이수연(광주여대), 남지현(광주체고)이 1, 2위를 다했다. 남지현(광주체고)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랭킹라운드로 치러진 남녀 컴파운드에서는 신정우(광주체고·606점), 김민준(광주체고·607점), 김예령(광주체고·606점)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은 “올해로 34회를 맞은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는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해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이며,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전 양궁인들이 참가해 우의를 돈독히 하는 광주양궁 발전 원동력”이라며 “대회에 참가한 모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궁계의 주역이 될 선수임을 기억하고,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광주양궁의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이강인·조규성 합류, 완전체 훈련 ‘분위기 ↑’

볼리비아, 가나와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올해 마지막으로 모인 흥명보호가 소집 이후 처음 ‘완전체’로 손발을 맞췄다.

흥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 충남 천안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이를 앞으로 다가온 볼리비아와 친선경기

에 대비한 훈련을 이어갔다. 한국 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맞붙고 나흘 뒤인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대결한다. 이번 친선경기 2연전으로 한국 대표팀은 숨가쁘게 달려 온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흥 감독이 애초 이번 소집한 선수는 27명이었다. 하지만 황인범(페예노르트)에 이어 백승호(버밍엄 시티), 이동경(울산)이 소속팀에서 부상의 부상을 입은 바람에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

흥 감독은 백승호와 이동경을 대신해서는 서민우(강원)와 배준호(스토크 시티)를 불러들여 총 28명의 선수로 이번 2연전 준비에 들어갔다.

10일 천안으로 소집된 대표팀은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과 해외파 중 일찌감치 입국한 손흥민(LAFC), 김민재(뮌헨), 김승규(도쿄), 김태현(가시마 앤틀러스), 조유민(샤르자), 원두재(코르파칸) 등을 합쳐 12명으로 단촐하게 훈련을 시작했다.

11일에는 황희찬(울버햄프턴), 양민혁(포츠머스), 옌스 카스트로프(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 엄지성(스완지시티),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권혁규(낭트)와 대체 발탁된 배준호,

흥명보호, 오는 내일 볼리비아 평가전 대비 ‘중원 플랜B’ 테스트 주력



손흥민이 11일 충남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된 오픈 트레이닝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우가 가세해 2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이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오현규(헝크), 조규성, 이한범(이상 미트윌란),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까지 12일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드디어 완전체를 이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한 훈련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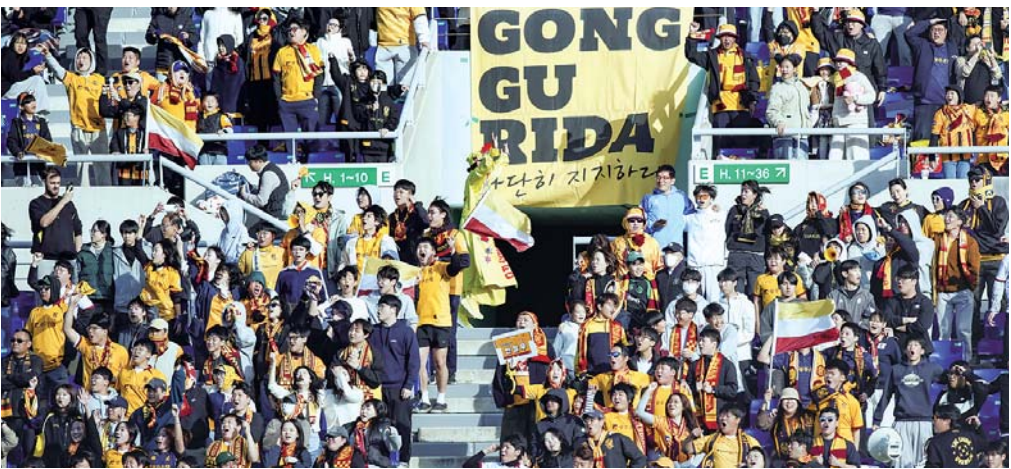
호흡을 맞춰볼 시간은 부족한데 부상 선수로 팀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당장 남미의 북명 볼리비아에 맞춘 게임 플랜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전술을 다듬는 데 집중했다.

특히 볼락이 주전으로 활약해온 황인범에 이어 백승호까지 이탈한 중원에서 새로운 조합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터라 대표팀으로서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처지다.

대선훈련회에 따르면 초반 10분 동안 간단한 태권호 훈련으로 몸을 풀고 선수들은 곧바로 공격 및 수비 포지셔닝을 통한 전술 훈련에 들어갔다.

40여분 전술 훈련을 한 뒤에는 10분 정도 세트피스 훈련으로 이날 담금질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팬들과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광주FC,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입장권 40% 할인 ‘수험생은 1천원’

프로축구 광주FC가 올해 마지막 홈경기를 기념해 팬 감사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광주는 12일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37라운드 울산HD FC전을 홈 폐막전으로 치르며,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입장권 4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FC의 3년 연속 K리그1 잔류, 시도민구단 최초 AFC 챔피언스리그(ACL) 8강 진출, 그리고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 등을 시즌의 뜻깊은 성과를 팬들과 함께 축하하고, 보내주시는 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입장권은 전 좌석 40% 할인(원정석 제외) 혜택이 적용되며, 수능을 마친 수험생은 1천원에 입장 가능하다. 예매는 온라인과 현장 모두에서 가능하다.

또한 광주는 2025시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플레이어 에스콰드 44명을 선발, 경기 전 선수들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팬 이벤트 및 코리아컵 결승 출정식 응원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며,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구단 노동일 대표이사는 “올해도 야망없는 응원으로 구단과 함께해주신 팬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홈 최종전은 팬과 구단이 함께 시즌의 마무리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백기태호, 32강 상대는 잉글랜드 ‘공은 둥글다’

오는 15일 오후 9시30분 맞대결

백기태호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32강전에서 잉글랜드를 상대한다.

FIFA가 12일 확정해 발표한 대회 32강 토너먼트 대진표를 보면 한국은 32강에서 잉글랜드와 대결하고, 여기서 승리하면 오스트리아-튀

니지 경기 승자와 16강전을 치른다. 잉글랜드와 32강전은 15일 오후 9시30분 치러지며, 16강전은 18일 오후 9시에 열린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도하의 어스파이어존에서 치러진다. 한국은 잉글랜드와 U-17 대표팀 간 통산 전적에서 승리 없이 3무 2패를 기록했다.

백기태호는 만약 8강에 오른다면 일본이나

북한을 상대할 수도 있다.

북한은 16일 오전 0시15분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32강전을 치르며, 여기서 이기면 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경기 승자와 18일 오전 9시 16강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백 감독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잉글랜드가 우승 후보로 강한 팀인 것은 맞지만 공은 둥글고 이 연령대는 변수가 많다. 자신감 있게 하나의 팀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옥태훈, KPGA 제네시스 대상 등 5관왕 영예

옥태훈이 한국프로골프(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 5관왕에 오르며 2025시즌 KPGA 투어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옥태훈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네시스 대상과 톱10 피니시상, 상금 1위, 덕춘상(최저타수상), 한국골프기자단 선정 기량발전상 5개 상을 휩쓸었다.

옥태훈은 올해 제88회 KPGA 선수권, 군산C

C오픈, 경복오픈에서 세 번이나 정상에 오르며 제네시스 대상과 상금 1위(10억7천727만원)에 올랐다.

그는 제네시스 대상을 받아 보너스 상금 2억 원과 제네시스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고, 2025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출전권, PGA 투어 켈리파인스쿨 최종전 직행 자격, DP 월드투어 시드 1년, KPGA 투어 시드 5년 등도 확보했다. /연합뉴스